

#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성찰

Christian Worldview and  
Christian Social Movement

강수택

1. 들어가는 말
2. 사회운동의 의미와 그 역사적 성격
3. 19C 독일에서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예
  - 1) 카톨릭 교회의 사회운동
  - 2) 개신교의 사회운동
4. 몇가지 생각해 볼 원리들
  - 1) 세계관적 지향과 운동의 목표
  - 2) 참여자의 요소와 실천방법의 문제
  - 3)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문제
5. 맺음말



강수택.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독일 Bielefeld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사상사, 사회학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 **Abstract**

Faced with various new social problems many kinds of social movements have appeared in the modern european history. Like this one can see many social movements in current Korean society with easy. Niether in Europe nor in Korea Christians have remained indifferent to this situation. Many of them have been engaged actively with various social movements, partly realistically and partly idealistically.

This paper aims at overviewing the history of Christian social movements in Germany as an example and inferring general principles for Christian social movements from this description.

The principl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hristian social movement means a sort of collective endeavors for the solution of the social problems,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2) For those endeavors it is required that theories especially of society and history have to be developed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3) Practice in Christian social movement presupposes self-sacrificing spirit of the participants and change of their life at first.

(4) Christian endeavors are not only motive-ethical (*gesinnungsethisch*), but also responsibility-ethical (*verantwortungsethisch*), because they are oriented in principle not to the participants self, but to their neighbours.

## 1.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이다. 거듭난 자의 삶은 한편으로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은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실천해 가는, 즉 주님의 빛과 생명을 자신을 통해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깔린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리고 그 딥고 있는 이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며 그 광채는 더욱 멀리까지 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더욱 더 필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실이 총체적 위기의 상황, 총체적 난국이라고 곧잘 규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규정에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상황규정이 이루어진 배경들 역시 동일하지 않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상황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 제반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고 앞으로의 그 해결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진통들이 따르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두운 사회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그 만큼 더 크고 중요하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 자신들이 빛과 생명의 근원인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어렵פות한 것일 따름이다. 하지만 친히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빛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호 부족함을 보충하여 주는 한, 그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여러 곳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많은 노력들을 행해 왔으며, 그 결과 귀중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공동의 노력들이 비록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향 및 목표설정, 그리고 실천방법 등의 면에서 상이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파급성과 지속성, 지역 교회와의 관계 등의 면에서도 차이점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호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상기의 공동노력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도 한다.

이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공동노력들을 본인은 이 글에서 특별히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근대 서구의 역사 속에서 발생, 전개되어 온 사회운동들의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독교 사회운동들을 19C 독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이 사례들의 관찰에 힘입어 기독교적 사회운동이라는 공동의 노력들 속에서 견지되어야 할 원리들을 기독교 세계관적 토대 위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있어야 할 공동의 노력들을 위한 하나의 작은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 2. 사회운동의 의미와 그 역사적 성격

기독교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보기 전에 우선 예비적으로, 일

반 사회학에서 파악되는 바 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기초 위에서 발생, 진행되어 왔는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 사회운동의 발생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적 요청들과 그리고 세속적 사회운동의 역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R. Heberle이 사회과학 사전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서구 언어에서 사회운동이란 어떤 사회제도에서의 변화를 야기하고자 하거나 어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폭넓은 집합적 시도들을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D. L. Sills, 1974: 438~440쪽 참조) 이 단어는 19C 유럽에서처럼 어떤 때에는 종교운동, 정치운동과 구별되어 새로운 산업노동계급의 운동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20C 중엽 이후로는 사회질서에 직간접적으로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운동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사회운동은 한 특수한 종류의 조정된 행위집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은 대중, 군중들과 같은 집합행동 보다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이지만 정치적 혹은 여타의 결사체들처럼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다. 물론 이들이 조직화된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으나 이 때 이 집단들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공식적 조직체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집단의식을 통한 결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식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발생하지만 운동의 이념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를 뚜렷이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그 목표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소 세련되고 일관성 있는 일련의 이념들을 발전시킨다. 이들 이념들로부터 보다 가변적인 성격의 행동강령들이 도출된다.

그런데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들 중의 하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운동들의 발생이 사고의 세속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R. Heberle이 지적하는 대로, 기존의 사회질서는 근본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지위개선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이전의 반란들과는 달리, 이러한 사회운동들이 서양에서는 18C 이후에 와서야 그리고 동양에서는 서양과의 문화적 접촉이 이루어진 최근에 와서야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사회질서를 인간적 작업의 산물로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질서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자유주의적인 사회운동들과,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노동자 집단들의 구급의 궁극적인 이유로 여겨진 사유재산 제도를 타파하고 공유재산에 기초한 무계급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적인 사회운동들은 대부분이 계몽주의적인 정신, 즉 합리주의적으로 세속화된 사고 위에 기초해 있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경험들은 이러한 집합적 노력에 참여한 자들에게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 이성을 통해 펼쳐질 내일을 낙관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빈번히 전통적인 교회들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이들 대혁명이 성공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과 같이 그 이웃한 나라들에서 이 충돌은 특히 심하였다. 교회의 문화가 전통적인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유럽사회에서 과거와의 대결은 곧 교회와의 대결을 뜻하는 면이 컸던 탓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사회운동들이 그 세력들을 확대시켜 가고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사회의 고유한 특징들 곧,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들도 만만찮았다. 군주제, 신분제, 교회의 전통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할 대상의 대체적인 중심을 이루었다. 이런 노력을 한 정치인, 사상가, 예술가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물론 결코 동일한 집단은 아니었다. 중세로 돌이키려 한 복고적 보수주의자들과 핵심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적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상호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과 교회간에는 시대적 상황이 제공해 준 입장의 공통점과 그 결과 공통의 노력들

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속적 보수주의와 일치될 수는 없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과거나 현재의 어느 시점에 고착되어 있을 수가 없었으며 어느 사회집단에만 제한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느 폐쇄된 이데올로기와도 결코 등치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 혹은 교회에 의한 사회운동들은 때로는 위에서 언급한 세속적 이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세속적 사회운동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 전개과정을 19C 독일의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관찰을 통하여, 기독교 사회운동의 몇가지 원리들을 기독교 세계관적 기초 위에서 정리하는데 필요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19C독일에서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예

먼저 19C 독일의 사회적 상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서구에서 가장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난 제사회적 문제들과 강력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력,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집권적 국가 주도의 대응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은 사회주의자들과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독교 신구교의 여러 제안들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노력들이 이 기간 동안 꾸준히 행해졌는데 이것들은 특히 2차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여러 사회정책들의 원리와 내용에도 연결되게 된다(유은상:1989: 83~84쪽).

#### 1) 카톨릭 교회의 사회운동

우선 카톨릭 교회에서의 현실적인 노력들을 살펴 보기 전에 카톨릭 교회의



사회관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들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a) 카톨릭 교회의 사회관

카톨릭 교회의 사회관,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회론은 토마스 아퀴나스(1225 / 26~74)의 사상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어거스틴의 하나님 나라(Civitas Dei)-땅의 나라(Civitas Terrena)의 이원론적 사회관을 자연법 개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그의 자연법 개념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적 토대인 계몽주의 사상이 자연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파악하려 했을 때 이를 하나님의 이성을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세속적 합리주의의 도전 앞에서 카톨릭 교회를 방어하는 중요한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사회 이론의 골자는 E. Troeltsch에 의하면 유기체론(Organismus)과 가부장제(Patriarchalismus)에 있다고 한다(유은상, 1989: 89쪽).

19C의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입장들은 비록 사회운동가들과 교황들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관된 흐름은 상기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회이론을 당시의 문제들 앞에서 새롭게 해석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이론적으로 정리된 19C의 카톨릭 사회론은 인격의 원리(Das Personsprinzip), 연대성의 원리(Das Solidaritätsprinzip), 보조성의 원리(Das Subsidiaritätsprinzip)를 주내용으로 한다(유은상, 1989: 91~93쪽).

인격의 원리는 인간이 사회의 근본이요 목적이라는 점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

---

1)故 J. Höfner 추기경은 카톨릭 사회론에서의 세 가지의 사회질서 원리로서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와 함께 공익원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연대성의 원리는 인격적이면서 사회적인 인간들 간의 결합의 구조와 의무에 관한 것인데 비해 공익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공익의 원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같은 공익적 사회권위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J. Höfn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1975: 박영도 역, 그리스도교 사회론, 48~60쪽

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그의 인격성을 오직 노동을 통하여 전개해 가기 때문에 인격적 성격의 노동이 도구적 성격의 재산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질서에서도 노동이 결정적이며 재산은 보조적이라는 것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존성, 상호작용에 관해 논한다. 이 원리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인격성의 전개의 결과로 보아 개인의 재산과 이의 상속을 인정, 변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방향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소유라도 공공선에 일치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원칙으로서의 독자성, 자기목적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인격성의 전개의 기본적 기회를 개인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함을 지적한다. 즉 이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사회의 도움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전개시킬 수 있도록 돕는 도움(Hilfe zur Selbsthilfe) 곧 보조적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b) 카톨릭 교회의 사회운동의 전개내용과 그 정치사회적 의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사랑의 실천운동이라는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19C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의 카톨릭 교회의 사회운동은, 1848년의 시민혁명 이전에는 카톨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장했던 평신도들의 사상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유은상, 1989: 93~99쪽).

이들의 사상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사상이 L. von Stein을 통하여 독일에 소개되기 전이라서 사회주의적 사상의 영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단지 프랑스 대혁명기의 자코방당의 반카톨릭적,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을

---

2 유은상 교수는 이에 속한 인물들로서 A. Mueller, F. von Baader, F. von Buss, P. Reichensperger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의식한 점은 지적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대표적인 한 인물인 Franz von Baader는 한때 광산 공학자였던 사람으로서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노동자 소득의 감소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사유재산제 폐지를 통한 자코방당적인 기계적 평등을 거부하고, 대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규제함으로써 단순한 법적 자유 위에서 사회구조로부터 분리된 채 원자화되어 있는 프롤레타리아, 즉 당시의 노동자들을 다시 유기체적인 사회 속으로 복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848년의 혁명 이후에는 여러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제안들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상들이 노동자들, 수공업자들과 연결되어 실천되었다. 즉 이 혁명 이후의 시기에서의 카톨릭 사회운동은 소외된 노동자, 수공업자를 위한 사제들의 운동인 동시에 노동자, 수공업자들이 카톨릭 교회의 사회상을 따라서 스스로를 조직해 가는 카톨릭 노동자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예컨대 A. Kolping 신부는 1849년 카톨릭 수공업자 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1860년에는 회원 수가 6만이나 되는 유사한 모임들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이 협회를 조직하고 공동의 숙소와 교육시설을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적 신앙적 태도를 확립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기능을 감당하고 상호협력해 가는 유기체적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하였다. W. E. von Kettler 주교는 당시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의식주의 곤란에 있다고 보았지만 물질적인 해결에 앞서 신앙적 도덕적인 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 때라야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해서 1868년 이후 카톨릭 사회협회들이 그리고 1875년 이후에는 수공업자와 견습공, 광산 노동자, 공장 노동자 협회 등이 계속 조직되어졌다. 그의 카톨릭 노동자협회 운동들은 약 3만 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되었다가 문화투쟁으로 중단되었다.

1891년에는 카톨릭 교회 사회운동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레오 13세의 회칙 “Rerum novarum”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교회청 당국이 사회주의

의 잘못을 논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카톨릭 노동운동을 적극 권장하였다. 즉, 사회주의의 재산이론을 거부하고 노사의 유기체적 협력이 근간이 된 노동자운동을 제시하였다. 이 회칙의 반포 이후 F. Hitze 등이 중심이 되어 카톨릭 노동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1899년에는 기독교 노동조합 전체 기구가 만들어 지고 1911년에는 약 50만 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카톨릭 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복지(Arbeiterwohl)라는 협회가 기업가 F. Brandt에 의해 1880년에 만들어져서 카톨릭적 기초 위에서 사회정책의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정치적 수준에서 보면, 1848년 Frankfurt 국민회의를 계기로 카톨릭교인 의회의원들 사이에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것이 출발이 되어 후에 중앙당(Zentrumspartei)으로 발전하였는데, Kettler 주교와 Hitze 등과 같은 헌신적인 카톨릭 사회운동가들이 중앙당의 핵심적 인물이 되어 당의 사회정책적 입장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펴 본 19C의 카톨릭 사회운동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앞에서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유은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점들로 정리하고 있다(유은상, 1989: 100~102쪽). 첫째, 이 운동은 당시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급혁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 즉 유기체적 사회관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이 운동은 자유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주장을 유기체적 사회관, 연대성의 원리 등에 근거하여 비판하였다. 셋째, 이 운동은 사회나 국가에 의한 경제운용과 같은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이론을 보조성의 원리 등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였다. 넷째, 이 운동은 신앙과 도덕의 회복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모두 당시의 사회문제의 핵심이 신앙적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은 이 운동의 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다섯째, 이 운동에는 카톨릭 교회가 다른 정치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아내려는 정치적인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실제로 이 운동이 그러한

작용을 하였다.

## 2) 개신교의 사회운동

19C의 동일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동일한 세속적 정치세력 앞에서 신구교가 보여 준 대처방식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통일독일을 이룬 프로이센의 왕가가 개신교적 왕실이었다는 점과 둘째, 신구교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한 신학적 교리가 달랐다는 점에 있다. 즉 개신교적 사회운동은 反사회주의적이며 反자유주의적인 면 외에 카톨릭과 달리 왕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카톨릭에서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원론적 자연법 개념과 달리 루터의 두 왕국설이라는 이원론적 교리에 근거한 사회윤리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라는 점에서는 카톨릭보다 덜 자유로운 면을 갖고 있었다(유은상, 1989: 103~104쪽).

### a) 개신교의 사회운동의 신학적 기초

19C 독일의 개신교 사회운동의 중요한 신학적 배경은 Martin Luther의 두 왕국설이었다. 루터는 1523년의 책 「세속권세에 관하여」(von weltlichen Obrigkeit)에서 하나님의 두 왕국, 즉 오른편의 하나님의 왕국과 왼편의 하나님의 왕국을 나누고 있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뜻을 따라 은혜의 사명, 즉 복음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이며 후자, 즉 땅의 나라는 군왕들이 정의의 질서를 따라 처벌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러나 루터는 악마의 나라(civitas diaboli)를 땅의 나라와 동일시한 어거스틴과 달리 악마의 나라는 이 두 왕국과 별도로 존재한다고 봄으로써 세속국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땅의 나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보았음은 물론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땅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중 시민권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엄격히 둘로 나뉘어 한쪽은 교회에 의해 다른 한쪽은 세속국가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독일의 개신교회들은 경건주의적 전통에 속한 것이든 루터파 정통주의에 속한 것이든 사회윤리에서는 루터의 이 두 왕국설에 의해 영향받고 있었는데 이 두 왕국설은 개신교에서의 사회적 참여가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전개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유은상, 1989: 105~107쪽)

#### b) 개신교 사회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

19C초의 개신교 사회운동은 카톨릭에서와 달리 이론으로부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848년의 혁명 이전에는 주로 나폴레옹 전쟁 후의 고아, 과부, 전상자 문제와 후에는 산업화로 인한 수공업자,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신앙각성 운동 참여자들의 구체적 성격의 노력들이 중심이 되었다. J. Falk, Graf. v. Recke 등의 고아원 설립을 통한 사랑의 노력들, Ch. H. Zeller와 Spittler의 “빈자의 학교”와 같은 운동들, E. v. Kottwitz(1757~1843)의 수공업자, 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노력들이 그 사례들이다. 그 외에도 곧 소개할 Innere Mission의 지주가 되는 개신교 수녀원 운동이 이 시기에 Th. Fliedner(1800~1864)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유은상, 1989: 108~113쪽).

1848년의 혁명은 개신교 사회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이때까지 유기체적 연계없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실천운동들이, 1848년에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혁명정신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낀 500여 명의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들이 모여서 연 교회평신도회의(Kirchentag)에서 결성된 Innere Mission이라는 새로운 전국적 조직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통일되어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Innere Mission의 중앙위원회는 기존의 조직들의 활동 촉진, 새 운동과 조직의 결성, 초지역적 사업지원, 간행물 발간과 배포 등을 통하여 기독교 사회운동의 독일적 전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Innere Mission의 정신적 지주는 J. H. Wichern 목사였다. 그의 초기 사상 특히 1848년 혁명 당시의 사상에는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의 측면이 있으나 후기로 갈수록 루터적 이원론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당시의 이 운동참여자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 어쨌든 그는 사회를 유기체적으로 이해하여서 기독교적 민족, 국가, 교회, 가정, 신분들이 큰 기독교적 사회유기체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Innere Mission을 통한 사회운동은 국가와 교회를 함께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는 유기체의 필수 단위이며 따라서 존중되어야 할, 나아가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간주되어 백성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의 입법기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다.

Innere Mission의 이론적인 제약은, 당시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단순히 구제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임을 들어 구제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사회운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V. A. Huber<sup>3)</sup>같은 이의 탈 루터적 제안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유은상, 1989: 113~118쪽)

이 시기에 기억되어야 할 다른 중요한 인물은 R. Todt(1839~1887) 목사이다. 그는 당시의 프롤레타리아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과격한 사회주의의 산실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의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사회주의의 본질로 보지 않고 시대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유래

3) V. A. Huber(1800~1869)는 기독교적 보수주의의 확산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내세웠다. 그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생산과 연결된 산업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하여 원자화된 노동자들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 형식인 협동조합이 기독교적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대한 정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Innere Mission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Innere Mission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유은상, 1989: 115~116, 133~152쪽).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무신론적 혁명주의를 반대하여 이것을 기독교적 사회주의의 점진성 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개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하였으며 자신의 구상의 실현을 위해 사회개혁 중앙위원회(Zentralverein fuer Sozialreform)를 설립하였다. 이 회의의 강령은, 사회문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없는 사회문제, 특히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안의 기독교적 수용을 통해 혁명을 막고 점진적 개선을 시도한 것이었다(유은상, 1989: 119~121쪽)

개신교 사회운동의 전개양상이 크게 바뀌어진 것은 반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이 극에 달하게 된 1890년대 초반이었다. 사회주의 금지법의 효력이 끝나고 사회주의자들이 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을 때 개신교의 목사, 신학자, 사회과학자 등이 모여 1890년에 개신교사회 회의(Evangelisch-sozial Kongress)를 열고 사회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였다. 1896년부터는 ESK의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하여 노동자 운동이 시작되어 개신교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다. 이것들은 키톨릭 노동조합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ESK에는 노선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속해 있었다. A. v. Harnack과 같은 신학적 자유주의자도, 그리고 A. Stoecker같은 신학적 보수주의자도 참여하였다. 사실 개신교 사회운동에서 자유주의적 신학노선에 속한 사람들의 관여는 19C 말에 이르러서, 즉 이 ESK를 통하여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F. Naumann처럼 밑으로부터의 문제해결을 주장하며 조직과 합동을 강조한 사람도 있어서 정부 당국의 사회정책의 집행을 통한 위로부터의 해결이라는 입장과 대립하였다. 구성원의 이같은 큰 다양성은 결국 이 모임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Stoecker 목사는 1897년에 교회사회 회의(Kirchlich-soziale Konferenz)를 새로 결성하여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정통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모임은 계급간의 갈등이나 중오가 사회를 개선시키는 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사랑이 이것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모임은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R. Moom, L. Weber, R. Seeberg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선교, 여성문제, 노조운동 등을 이 노선을 따라 전개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들이 Innere Mission의 지도를 담당함으로써 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갔다. 그리고 F. Naumann도 민족-사회 협회(National-Sozialen Verein)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정치방향으로 들어 갔다(유은상, 1989: 108, 122~125쪽)

이제껏 살펴 본 것처럼 19C의 개신교 사회운동의 전개방식은 외적으로는 사회문제의 출현양식과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방식에, 그리고 내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의 신앙적 신학적 태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사회운동은 독일의 사회적 보수주의 운동의 모체가 된다고 유은상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보수주의 운동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개신교 사회운동 출신이며, 인간관, 사회윤리관 등도 기독교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유은상, 1989: 125~126쪽) 이 사회적 보수주의는 이차대전 종전 후의 서독의 정치사회에서 좌우 진영에 영향을 크게 미쳐 결국 안정된 새로운 정치체제의 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4. 몇가지 생각해 볼 원리들

##### 1) 세계관적 지향과 운동의 목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운동이란 하나의 집합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이다. 이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새로운 사회질서 내지 사회제도의 건설이다. 그리고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 개념이듯이 사회운동도 근대적 현상이다. 즉, 기존의 사회제도 내지 사회질서를 영원한 것, 정상적인 것 혹은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태도의 변화 위에서 사회운동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속적인

자유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 등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중세교회의 질서와 동일시하고 기존의 세계관을 교회의 가르침과 동일시한 계몽주의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 그리고 당시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고무되어서 반교회적,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였던 것이다. 즉,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노력이 근거해 있는 세계관은 이와 다르다. 이 세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며 인간 역사의 진행과정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진행과정의 어느 시점에 심판과 종말이 있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이의 선용은 귀한 것이지만 분명한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역사의 궁극적 미래에는 현재가 끝없이 발전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다. 그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세속적인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미래관에서 과거나 현재를 절대화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차 있는 세속적 보수주의나 요즈음의 세속적인 생태학적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비관적 종말론과도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실천적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사랑의 정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친히 독생자를 바치신 정신이자 이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정신이다. 그리고 이 실천적 노력의 목표는 어려움의 해결인데 이 어려움은 그 이웃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의 온전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정신과 목표를 갖고 마치 어떤 사람이 병들어 고통해 하고 있을 때 비록 그는 결국은 신체적으로 죽을 인생이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에도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총체적으로 도우려 적극 노력하듯이, 어떤 사회제도나 사회질서가 병들어서 그 속의 이웃

들이 고통해 할 때에 그 고통의 해결을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집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회운동인 것이다.

## 2) 참여자의 요소와 실천방법의 문제

광범위한 헌신적 참여자가 없는 사회운동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사회운동이란 참여자들의 집합적 노력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운동이 발생하고 발전할 사회구조적 여건이나 대안적 이념, 그리고 지도자의 특별한 역할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의 사회적 갈등, 박탈감, 불확실성, 규범과 가치간의 모순 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긴장 상황 속에서 이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반화된 신념들이 성장, 파급되고 거 기다가 어떤 촉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도자의 지도력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동원됨으로써 사회운동이 일어난다는 N. J. Smelser의 이론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란 결국 일종의 집합적 인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발생과 전개 양상은 지도자를 포함한 참여자들의 세계관, 신념, 판단력, 용기, 지도력과 헌신도 등의 개인적 자질들과 참여자들의 폭과 같은 양적인 면에 의해 크게 규정된다.

실지로 기독교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참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독일의 사례를 보아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신앙관, 사회관, 문제의식, 지도력, 개인적 경험들 등에 따라서 그리고 일반적 참여자들의 경험들, 문제의식, 헌신도와 참여의 폭과 방식, 혹은 기타의 개인적 특징들에 따라서 기독교 사회운동들의 상대적 특징들, 파급정도와 지속 정도 혹은 영향력 등이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참여자적 요소들을 크게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첫째, 기독교 사회운동 참여자의 역사관, 사회관 등에 따라서 그들이 참여한 기독교 사회운동들이 때에 따라서는 민족주의적인, 때에 따라서는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 혹은 생태학적인 세속적 사회운동들과 비

슷한 모양을 드러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는 한 길게 보면 세계관적 공통성을 나누고 있음과 세속적 계 운동들과 일치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도출하게 되는 한 중요한 점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서는 이웃사랑의 정신 외에 기독교 세계관에 보다 바르게 근거해 있으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보다 기독교적인 사회관, 역사관의 정립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헌신적인 것, 즉 자기희생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실천이다. 기독교 사회운동에의 참여자는 끝없는 운동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이웃사랑의 실천 그 자체로부터 이 땅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이 점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은, 애초의 열정이 쉽게 현실적 보상욕구에 의해 대치되어 형식화되어 버리곤 하는 세속적 사회운동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점이 세속적 사회운동을 보다 목적론적인 운동으로 만들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보다 실존적인 실천운동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이 점은 사회운동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선택에도 작용을 한다. 즉,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사회제도 내지 사회질서의 건설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과 전술은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 사회운동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그것이 기초해 있는 정신에 부합되면서 동시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요청이 상호 모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세속적 사회운동은 그 지나친 목적론적 요청 때문에 기독교적 사회운동에 비해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운동에서 사용되는 전략과 전술들은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으며 폭력적일 수도 있고 비폭력적일 수도 있다. 어떤 운동은 민중의 지지도와 무관하게 목표달성을 시도하기 위해 사회적 조작의 전략을 쓰기도 하며 개인적인 변질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김경동, 1978: 521쪽) 그 외에

도 수많은 현실적 방법들이 있는데 기독교 사회운동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방법들을 선택할 때 기독교적 정신 내지는 원리를 결코 뒤로 미루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실천의 과정이 기독교적이지 않는 사회운동은 결코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참여자의 자기 회생이 수반된다.

그리고 R. Turner와 L. M. Killian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운동에의 참여자는 그 참여를 통하여 자신과 他참여자들의 개인생활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의 변화를 이룩하려고 하기도 하며(개인표현 지향적 운동) 다르게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체제나 규범체제를 변경시킴으로써(가치 지향적 운동) 혹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함으로써(권력지향적 운동)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룩하려고 한다고 한다(J. V. Baldridge, 1981: 234~237쪽) 여기에 서도 기독교 사회운동은 결코 단지 권력획득을 통하여서만은 사회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치나 규범체제의 변경과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참여자의 생활의 변화를 동시에 중시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한다.

### 3)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문제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지기에 여호와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기독교 사회운동의 최종적 결과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들에는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선한 동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헌신적 노력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는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에는 책임이 없고 동기와 노력에만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M. Weber는 이러한 태도를 심정윤리적인(*gesinnungsethische*) 태도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행동의 결과에만 책임을 두는 태도를 그는 책임윤리적(*verantwortungsethische*) 태도라고 부른

다(M. Weber, 1963: 58~68쪽)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의 윤리와 심정윤리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인 이웃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의 실천은 실천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가 그 이웃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여 해를 끼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실천행위 그 자체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윤리가 Weber적 의미에서의 책임윤리와 일치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 있듯이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노력은 실존적 의미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된 목표는 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듯하더라도 기독교 윤리에는 모순되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참여자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노력의 전과정 속에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잃지 않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선한 결과를 이루고자 인내하면서 부단히 간구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친히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에 있어서의 성패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한 것임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 5. 맺음말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운동들이 새로 생겨나서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그중에는 보다 사회적인 성격의 운동들도 많이 있다. 이 기독교 사회운동들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성격들이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다양성은 주로 참여자들의 신학적 배경, 지도자들의 사회관, 정치관, 참여자들

의 구성, 운동의 목표와 발생 배경 등과 관련되어 있다. 때로는 그 성격의 차이가 무척 커서 상호 경쟁 내지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다른 기독교 사회운동보다 세속적 사회운동에 더 가깝고 또 실지로 그러한 방식의 연합활동을 전개하기도 하며 다른 기독교 사회운동에 공격의 화살을 퍼붓기도 한다.

인간의 삶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생각과 관심, 취향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생활방식이 다윈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이 점에서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성격이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함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기독교 사회운동이 기독교적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 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역사관, 사회관, 운동관, 그리고 그 운동에서 실지로 사용되는 실천방법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동과정도 보다 기독교적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보다 기독교적인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모색이 없이 단지 참여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기독교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 사회운동과 다름없으며 이런 이유로 그것은 세속적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아닌 이것에로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모색의 결여가 지속된다면 물론 당연히 소위 기독교 사회운동들 간에는 상호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기독교적인 것을 찾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진전되며 그 결과들이 운동의 참여자들에 의해 수용된다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여전히 존재하겠으나 이들 제 기독교 사회운동들의 다양한 노력들과 때에 따른 연대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더욱 환한 빛으로서 드러나며 더욱 필요한 맛을 내는 귀한 소금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뒤늦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심각한 좌우대결을 경험하고 참혹한 나찌시대를 보낸 독일의 경우는 신구교에서 모두 이 경험들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보다 기독교적인 해결방안들을 찾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들을 경주한 결과 지

금은 교회가 전체 사회의 윤리적 방향키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도 끊임없이 발생, 진행되고 있는 세속적인 여러 사회 운동들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기독교적인 사회운동들이 교유의 귀한 몫들을 톡톡히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있다. 이들 기독교 사회운동들을 독일 개신교 교회 평신도회의(Ev. Kirchentag)의 현 의장인 H. Simon氏는 경건한 시민운동(fromme Buergerbewegung)이라고 부른다.

### 토론과제

1. 기독교 사회운동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자.
2. 기독교 사회운동의 참여자는 꼭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3. 현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목표의 운동단체들이 결여되어 있는가?
4. 현재 한국 교회의 주요한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 가운데 서로 다른 사회관에 기초한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고 그 사회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 참고문헌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1978.
2. 김대환, 사회사상사, 법문사, 1991.
3. 유은상, 19세기 독일의 사회적 보수주의, 대학촌, 1989.
4. 복음과 상황, 1992, 5/6
5. J. V. Baldridge, Sociology: 이효재 외 역, 사회학, 경문사, 1981.
6. C. Brinton 외, A History of Civilization: 양병우 외 역, 세계문화사, 中, 을유문화사, 1967.
7. G. Denzler 외, Woerterbuch der Kirchengeschichte, dtv, 1982.
8. H. Grebing,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dtv, 1980.
9. J. K. Hoeffn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박영도 역, 그리스도교 사회론, 분도출판사, 1979.



10. R. Runge 編, *Kirchentag 89: Berichte und Materialien aus Berlin*, Chr.Kaiser, 1989.
11. Th. Schober 외 編, *Evangelisches Soziallexikon*, Kreuz Verlag, 1980.
12. D. L. Sills 編,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4,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4.
13. M. Weber, "Politik als Beruf": 최문환 역, 학문과 정치론,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63.